Sermon of the Week:

The Place Where Death Meets Resurrection

Passage: Romans 6:4-5 (ESV)

Date: September 14, 2025

Pastor: Dong Suk Chung

The sole purpose of Christianity is the union of God and humanity. The reason that God made humans in His image and likeness was precisely for union with God. God desired to enter and dwell within His image and likeness.

But Satan deceived humanity with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o prevent that union. The moment a person ate the fruit, they made themselves the master and became independent from God. When the person—originally made to display God's abundance—left that position, they started trying to fill themselves with the things of this world. Yet worldly knowledge, wealth, and honor can never satisfy a person. One made in God's image and likeness can be filled only by God.

God also made humanity from the dust. As 1 Corinthians 3 says, "you are God's field," humanity is the soil in which the seed of the kingdom of heaven are sown. God desires that Christ grow within the soil called "humanity." But Satan, by tempting humans with the forbidden fruit, led them to depart from the soil's nature and become like bricks. A person who has become like a brick is used as a tool to build an earthly kingdom—the Tower of Babel. Though soil may seem useless and common, it expresses whatever seed is sown into it. A brick, however, is already hardened and cannot allow a seed to sprout even if the seed is sown. God does not want us to be used to build the Tower of Babel. Rather,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He wants us to become a new creation, to live obediently to the Spirit's word, and to be used in building the kingdom of heaven.

How then can an invisible God and humanity be united? A sinner standing before the holy God must face death. But God became incarnate and, in the name of Jesus, became our Mediator. On the cross, Jesus conquered our sin and death and opened the way for Christ to enter into us. This oneness with Christ—welcoming Christ into my heart—is union with God.

How do we become united with Christ? It is through Jesus' death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The place where Jesus cried out on the cros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is the very place where we meet the Lord. For Jesus and us to become one body there must be something in common; because we ate the forbidden fruit and became spiritually dead, it is at that place of death that we can be united with Christ. One who understands that they are spiritually dead can be united with Christ through his death on the cross. It is only through death that resurrection can occur.

Problems between people—conflicts between spous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are also resolved only through union with Christ. Relationships that seem to fit well at first often do not last. However, those who are truly united with the Lord die daily, and as they die, they are filled with Jesus' life, enabling one another to live in Him. Only within the united life of God and humanity can every problem be overcome and God's new-creation work take place.

By contrast, the person who ate the forbidden fruit in an attempt to be like God is like a man trying to give birth to a child by himself. They attempt to obtain happiness and success without God, but such a pursuit is restless. The problem is not the environment or others but the persistent nature of wanting to be the master of oneself.

When we recognize that we are sinful beings made of dust and that we are those who should die on the cross, we are united to Jesus. Jesus did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to call sinners. At the start of His public ministry, Jesus overcame Satan's three temptations precisely because He remained in the proper human position to the end.

The nature of the fruit of the tree, which leads us to abandon our human position and seek to be our own master, cannot adopt such a posture. Human ability cannot be the object of faith, and pride in one's own ability leads only to destruction. We should not strive to become hands, but to be gloves; so when God comes, He will work freely through our lives.

Union with God is truly blessed. The great God, who was far off, came to us, died, and rose again to become our husband, our life, and to be one with us forever. God has called us to be vessels that manifest Him, as honored ones. As time goes on, may we more deeply realize our renewed position in the Lord and may the old self that denies this truth die daily on the cross so that Christ may be revealed through us.

나성교회 연락처

+1 562-690-7979

https://nasungchurch.net

information@nasungchurch.net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82 02-2293-4421

http://samsungch.or.kr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삼나소식

74호

나성교회 삼성교회

9월 28일, 2025년 NASUNGCHURCH.NET 74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로마서 6장 4-5절

날짜: 9월 14일, 2025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기독교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 안에 자신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선악과로 미혹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풍성을 나타내도록 지음 받은 사람이 그 위치를 떠나자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 애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 물질, 명예는 결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은 하늘나라의 씨앗이 심어지는 밭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흙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선악과로 사람을 미혹하여 흙의 위치에서 떠나 벽돌이 되게 했습니다. 벽돌이 된 사람은 세상 나라, 곧 바벨탑을 쌓는 도구가 됩니다. 흙은 비록 쓸모없고 흔해 보이지만, 씨앗이 떨어지는 대로 그 씨앗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벽돌은 이미 단단히 굳어져 씨앗이 뿌려져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탑을 건설하는 데 쓰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새 창조가 되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연합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죽여 없애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됨,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버림받으신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되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존재이기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본질을 아는 그 위치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위치이며 이 곳에서만 하나님의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역시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잘 맞아 보이는 관계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연합이 실제가 된 사람은 날마다 죽고, 그 죽는 만큼 예수님의 생명으로 점령되어 서로가 주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명 속에서만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마치 남자가 혼자 자식을 낳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과 성공을 얻으려 하지만 그 속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문제는 환경이나 타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려는 본성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죄된 존재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존재임을 알 때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 때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이유도 사람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위치를 떠나서 내가 주인되려고 하는 선악과의 본성은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해져서 사람의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멸망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손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장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 마음껏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멀리 계시던 위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남편, 생명이 되시고, 나와 영원히 한 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위치를 더 깊이 깨닫고, 이 진리를 부인하는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담임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 항암치료와 수술, 회복과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위해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 위암으로 항암치료가 시작됩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회) - 담석수술과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풀리 자매 (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부분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희순 집사 - 오른쪽 어깨수술 (회전근개파열) 회복과 재활을 위해, 왼쪽 어깨와 팔목 통증 치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4-5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 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2.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 위치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본성과 어떻게 다릅니까?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주간소식

- 담임 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에서 11월 중순에 있을 **계시록 말씀 사경회**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예정이라, 공항에서 교통이동을 위해 봉사해 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회 기간 동안 오신 손님들의 숙박을 개인 가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우들께서는 사경회 집회 준비 위원장이신 김학철 목사님과 총무인 홍성훈 형제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협조와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에는 10월 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 우리 교회 모세회 소속이시고 브레아 구역 소속이셨던 양홍숙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구역과 기관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한나여선교회 소속이며 LA 구역 소속이신 고영숙 자매님의 남편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지냅니다.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교회 삼나소식

http://samsungch.or.kr/samnanews/